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 제 3 공장 건설에 1 천억 투자...글로벌 수출 전진기지 건설 박차

- 나보타 3 공장, 연간 생산능력 1,300 만 바이알로 완공 시 연간 생산량 260% 증가
- 미국 FDA 우수의약품 제조·관리기준(cGMP) 및 글로벌 3 대 규제기관 실사를 모두 통과한 글로벌 최고 수준의 무균 공정 및 품질 시스템 이식 예정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이창재)은 자사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본격적인 사업 확장과 전 세계적인 수요 상승 대응을 위해 제 3 공장을 건설한다고 금일(2 일) 밝혔다. 1,000 억원 이상이 투자되는 3 공장은 올해 상반기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에 착공돼 오는 2024 년 준공 예정이다.

나보타는 국내 및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프리미엄 고순도 보툴리눔 톡신으로, 전 세계 보툴리눔 톡신 시장 1, 2 위인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미 진출한 데 이어 연내 오세아니아 지역과 중국 진출을 앞두고 글로벌 영토를 꾸준히 확장하고 있다. 작년에만 직전 년도 대비 수출이 123.3% 증가했으며, 나보타 판매량은 오는 2030 년까지 연 평균 20%씩 성장해 해외 판매량만 1,000 만 바이알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대웅제약은 오는 2027 년 전 세계 톡신 시장의 60%에 달하는 치료 적응증 시장에 진입을 예상하며, 액상형·지속형·마이크로니들 등 차세대 제형으로도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이에 대웅제약은 전 세계적인 나보타 수요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1,000 억원 이상을 투자해 연간 생산능력이 1,300 만 바이알에 이르는 3 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3 공장이 완공되면 대웅제약은 1, 2 공장의 연간 500 만 바이알 생산량을 포함해 최대 1,800 만 바이알의 생산 역량을 확보하게 된다. 공정 설계 최적화를 통한 생산능력 극대화를 추진하며 기존 제형 외 차세대 제형 생산을 통해 나보타의 사업가치가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웅제약의 나보타 1, 2 공장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품질 인증으로 분류되는 미국 FDA 의 우수의약품 제조·관리기준(cGMP)을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보툴리눔 톡신 제조시설로서는 한국 및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미국 FDA, 유럽 의약품청(EMA),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등 글로벌 3 대 규제기관 실사를 모두 통과한 글로벌 최고 수준의 무균 공정 및 품질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대웅제약을 이를 전부 3 공장에 이식함으로써 글로벌 수출 전진 기지로서의 위용을 갖출 예정이다.

한편, 나보타는 지난 해 국내 전통 제약업체가 개발한 의약품 중 최초로 연 수출 실적 1,000 억원을 돌파했을 정도로 전 세계 의료진과 환자들이 선호하는 글로벌 대표 보툴리눔 톡신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미국, 유럽, 캐나다, 브라질, 태국, 터키 등에서 전 세계 판매 파트너사들과의 적극적인 협력 및 마케팅을 통해 해외 시장에서 점유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인 모르도르 인텔리전스(Mordor intelligence)에 따르면 2022 년 글로벌 보툴리눔 톡신 시장은 53 억 미국달러(약 6 조원) 규모로 매년 9 – 10% 성장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작년 1,420 억원이었던 나보타의 매출 규모가 오는 2030 년에는 1 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박성수 대웅제약 부사장은 "대웅제약의 자체 개발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는 글로벌 톡신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해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수출 첨병으로 활약하고 있다"며, "3 공장 건설로 치료 적응증 시장 및 중국 시장 진출, 차세대 제형 개발 등 나보타 사업 확장을 본격화하는 동시에 2030 년 나보타 사업가치 10 조원 달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